

LGU+, 5G 마케팅 성과 모바일가입자 1500만명

5G 콘텐츠, IPTV 결합 등 주요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 다양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자가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터넷TV(IPTV)에 힘입어 1500만명을 돌파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모바일 가입자(MNO 및 MVNO)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400만 가입자 달성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 가입자수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를 발판으로 연간 8% 이상 급성장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주력한 5G 마케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U+VR·AR, 클라우드게임' 등 다양한 5G 콘텐츠를 바탕으로 10대부터 40대까지 고른 계층의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연령대별 분포는 40대가 16%, 20대 15%, 30대

14%, 10대 5% 순으로 나타났다. IPTV의 유무선 결합도 모바일 가입자 유치 요인으로 꼽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을 필두로 한 차별적 5G 콘텐츠들이 호응을 얻으며 모바일 전체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며 "실제로 5G 고객들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LTE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날 정도로 5G 콘텐츠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인당 모바일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롱텀에볼루션(LTE)이 월 12기가바이트(GB), 5G는 최대 월 30GB 이상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올 연말까지 전체 모바일 가입자 중 5G 고객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5G 가입자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 올레드 8K, 日도 '엄지척' 열도 공략 본격화

日 '하이비그랑프리'서 금상
외산무덤 속 '최고 제품' 의미
올레드 8K TV는 LG가 유일

LG전자 올레드 TV가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일본매체 하이비주관 '하이비그랑프리'에서 시그니처 올레드 8K(모델명: 88Z9·사진)로 금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비는 1983년 창간한 영상과 음향 전문매체다. 2016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번역본을 판매할 만큼 신뢰가 높다. 특히 TV 부문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매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고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LG전자는 하이비 그랑프리에서 처음으로 일본 제품을 제치고 최고 평가

를 받아냈다. 일본이 2018년 세계 최초로 8K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고해상도 TV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의미가 크다고 LG전자는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 기업인 샤프는 2017년 세계 최초로 8K LCD TV를 내놓는데 이어 소니도 지난해 8K LCD TV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단, 올레드 8K TV는 LG전자가 유일하다.

앞서 LG전자는 2016년 처음 일본에 진출한 이후 4년 연속으로 '베스트 바이' 제품에 꾸준히 선정돼왔다.

일본은 올레드 TV 판매 비중도 가장 높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올레드 TV 매출액 비중은 20%로 역대 최대였다.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달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하이비 2월호 모습.

/LG전자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韓 법인 설립

대형트럭·건설장비 금융 제공

볼보그룹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VFS)'가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설립하고 공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리 맥카트니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사장은 "한국의 볼보트럭과 볼보건설기계의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와 볼보 그룹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에 본사 차원에서 한국 지사 운영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VFSK는 볼보의 대형트럭과 건설장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상품부터 특장·트레일러 사업비용을 위한 '론 금융상품'까지 포함한 올인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7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진행된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한국 진출 기념식에 참석한 최진우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최진우 VFSK 대표는 "한국 시장의 운송·건설업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볼보 그룹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내 고객에게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

SKT, 상용망서 LTE 뺀 '5G 단독 통신' 성공

부산서 '5G SA' 통신 구현
데이터처리 효율 세 배 높아
상반기 중 세계 최초 상용화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상용망에서 '5G SA(5G 단독 규격)' 데이터 통신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부산 지역 5G 상용망에서 삼성, 에릭슨 등의 5G 장비를 이용해 '5G SA' 통신을 구현했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실제 운용 중인 5G 기지국 기반 5G SA 통신에 성공하며, 별도 기지국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효율적으로 5G SA 통신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시험망에서 데이터 통신 과정 전체를 5G 상용장비로만 구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5G SA 네트워크를 삼성, 에릭슨 등 서로 다른 장비



SK텔레콤 연구원들이 5GSA 통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제조사사의 5G 장비로 구성하는 것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기지국, 교환기 등이 서로 다른 장비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돼도 높은 품질의 5G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 상반기 중 세계 최초로 5G SA 통신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2018년 12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현재의 5G 네트워크는 롱텀에

볼루션(LTE) 시스템을 일부 공유하는 'NSA(5G-LTE 복합 규격)' 방식이다. 5G SA 통신은 LTE 망과 연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5G NSA 대비 통신 접속 시간이 두 배 빠르고 데이터 처리 효율이 약 세 배 높다. 이에 AR, VR,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5G 시대의 차세대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 방식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가상 네트워크를 분리해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요구하는 트래픽 품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외에도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초저지연,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을 포함해 기능 모듈화, 데이터 병렬 처리 기술 등 5G 네트워크의 관련 핵심 기술이 적용됐다. /김나인 기자

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동의'

지역성 강화 등 조건, 권고사항 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코앞에 다가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의 보호 등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턱만 남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을 위해 이 같은 조건을 부가해 사전동의의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대기업이 SO를 합병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기간 내에 정확한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전동의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 후보자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의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의 조건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6개 분야의 14개 사전동의의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동의의 한다는 내용을 이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AI 기반 KT '원내비'와 설 귀향길 함께하세요"

최적 시간대, 우회도로 등 추천

KT는 설 연휴를 맞아 '원내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교통상황 예측 시스템을 적용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KT가 보유한 '원내비 교통상황 예측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미래 교통상황 예측의 정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 딥러닝 학습을 통해 과거의 교통상황을 축적한 빅데이터와 현재의 교통상황을 결합 및 분석,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식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



우에는 정체 여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고, 최적의 우회도로를 추천해준다.

KT는 이 같은 예측 시스템을 기반

으로 다가오는 설 연휴 귀성·귀경길 최적 경로 및 목적지에 따른 최적 출발 시간대를 안내할 예정이다.

원내비 미세먼지 정보 및 녹색 교통 지역 단속 알림 서비스도 있다. 미세먼지 정보 안내는 운전자의 현재 위치, 이동 경로, 목적지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근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 정보 및 우회 경로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